'가을 호랑이' 4위 넘본다

헥터 노에시

KIA, 천적 잡으며 4연승…4위 LG와 1.5게임차

오늘 NC전 선발 헥터, 200이닝·5연승·15승 도전

KIA 타이거즈가 4연승으로 4강 불씨를 살려두었다. '호랑이 군단'의 막판 스퍼트를 위해 '특급 외국인 선수' 헥터가 나선다.

21일 밤 식어가던 4강 싸움 분위기에 다시 붙었다. 5위 KIA가 안방에서 만난 '천적' 넥센을 이틀 연속 제압하면서 4연승까지 승리를 이은 반면 4위 LG는 이날 NC와 12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4위 LG와 5위 KIA의 간격은 1.5경기차로 줄었다. 두 팀은 나란히 8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맞대결도 한 차례 남았다. KIA 입장에서는 4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의 4강 결정전이 될 27일 LG전에 앞서 KIA는 착실하게 승을 쌓아두어야 한다. 22일 경기가 없던 KIA는 이날 오후 마산으로 향했다. 선수단은 23일 마산에서 NC와 원정경기를 치른 뒤 광주를 들리지 않고 25일 kt와의 경기가 예정된 수원으로 바로 이동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헥터에게 KIA와 LG 팬들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헥터가 NC를 상대로 연승 잇기에 나서는 23일, LG는 경기 일정이 없다. 승리를 기원하는 KIA 팬들과 패배를 바라는 LG 팬들의 시선이 동시에 헥터에게 쏠리게 됐다.

헥터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등판이다. 팀의 가을 잔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헥터는 자신이 시즌 내내 이야기했던 '200이닝' 목표도 눈 앞에 두고 있다. 헥터는 지난 16일 LG전까지 29경기에 등판해 194.2이닝을 소화하면 올 시즌 10개 구단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똑같이 29경기에 나온 KIA 양현종과 SK 켈리는 각각 188.2이닝과 186.2이닝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헥터는 200이닝까지 5.1이닝만 남겨두고 있다. 올 시즌 평균 6.7이닝을 소화해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번 등판에서 200이닝 돌파가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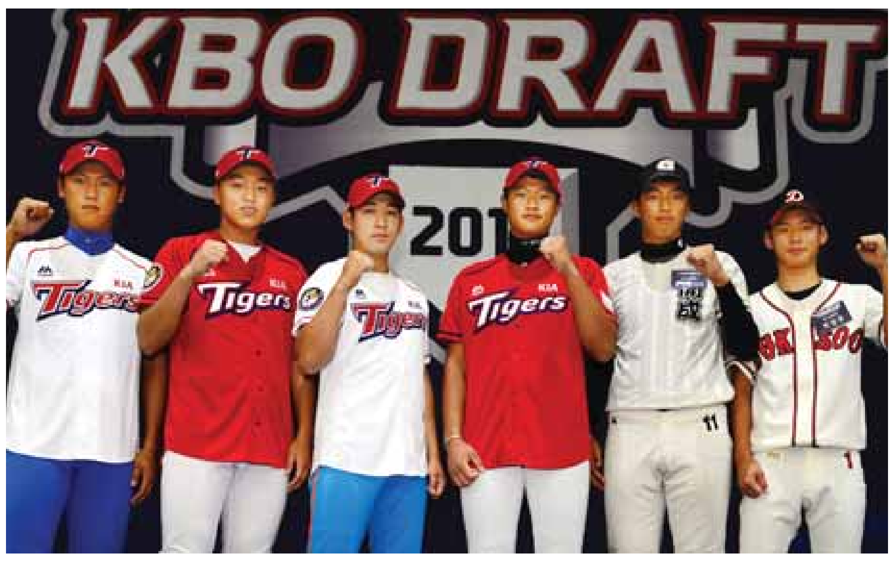
또한 헥터가 29번의 등판에서 6회를 넘기지 못한 경우는 단 세 번에 불과하다. 4월15일 넥센전 5이닝 6실점, 4월21일 삼성전 4.1이닝 8실점(7자책)과 승리투수가 됐던 8월6일 삼성전 5이닝 2실점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6회 이후 마운드를 내려왔다.

200이닝도 이닝이지만 승리의 가치는 더 크다. 헥터가 이번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 자신의 시즌 15승과 팀의 5연승이 동시에 완성된다. LG와의 격차는 한 경기차로 줄어든다.

헥터는 올 시즌 3.42의 평균자책점으로 전체 3위에 올라 있다. 시즌 초반 두 경기 연속 대량 실점을 했던 넥센·삼성전 성적을 빼면 2.96의 평균자책점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지만 규정이닝을 넘은 투수 중에서 가장 적은 피홈런(7개)을 남기며 '특급 외국인 선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닝 2위 양현종은 18차례, 이닝 3위 켈리는 14차례 한방을 허용했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KIA의 에이스 헥터가 200이닝, 15승 그리고 팀의 5연승을 노리며 재개된 4강 싸움의 전면에 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의 2017 신인들이 22일 KIA와 입단계약을 완료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지명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승철(왼쪽부터) 이승호, 박진태, 김석환, 송후섭, 박정우.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유승철과 계약금 1억8천에 입단 계약

신인 11명 계약 완료

KIA 타이거즈가 2017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KIA 타이거즈는 1차 지명선수로 선택한 투수 유승철(순천 효천고·**사진**)과 계약금 1억8000만원, 연봉 2700만원에 입단계약을 끝냈다. 2차 1라운드에서 지명한 이승호(경남고·투수)와는 계약금 1억5000만원·연봉 2700만원, 2라운드 박진태(건국대·투수)와는 계약금 1억1000만원·연봉 2700만원에 계약을 했다.

3라운드 김석환(동성고·투수)의 계약금은 9000만원, 4라운드 강찬영(인창고·투수)은 7000만원이다. 5라운드 송후섭(개성고·투수)와 김용인(성균관대·투수)은 각각 6000만원, 7라운드 박정우(덕수고·외야수)는 5000만원, 8라운드 최승주(야탑고·내야수) 4000만원의 계약금을 받는다.

9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정윤환(진흥고·투수)과 10라운드 이정훈(경희대·포수)는 계약금 30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연봉은 2700만원으로 동일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금(1온스) 앞 금(1온스) 뒤 은(스피드스케이팅) 앞 은(스피드스케이팅) 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26일부터 판매

금·은·황동화 등 11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주화가 오는 26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서울 풍산빌딩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 김연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식을 열고 기념주화 실물을 선보였다.

기념주화는 총 11종(금화 2종, 은화 8종, 황동화 1종)으로, 오는 11월 18일 최대 29만500장을 발행하는 등 2회에 걸쳐 발행된다.

주화 앞면은 우리나라 전통 겨울 풍속, 동계올림픽 종목, 평창올림픽 상징물이 담기고 뒷면에는 평창올림픽 엠블럼이 디자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금화 3만원화(296만원·4500장)에는 우리나라 전통 겨울 풍속인 '고로쇠 썰매'가 새겨졌고 금화 2만원화(152만원·1만5000장)는 평창올림픽 상징물인 '알펜시아 스타디움'과 스키점프 장면이 적용됐다.

5천원화 은화(6만2000원·20만장)는 모두 8종으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봅슬레이,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등 동계올림픽 종목이 각각 담겼다.

황동화 1000원화(2만2000원·7만1000장)에는 동계올림픽 7개 종목이 한꺼번에 담겼다. 조직위는 기념주화 3종(11종·10종·8종) 세트도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

내달 7일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아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교부한다.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등 10개 지정 금융기관 전국지점과 판매대행사인 풍산화동양행을 통해 예약이 진행된다.

국내뿐 아니라 발행량의 30%는 6개 해외 공식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국내 예약 판매 이후 남은 물량은 해외에 추가 배정된다.

이희범 위원장은 "기념주화 실물이 공개되고 선착순 예약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붐 조성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익사업에 따른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효준·이범호 이달의 감독상

KIA 타이거즈 투수 고효준과 내야수 이범호가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넥센과의 홈경기에 앞서 시상식을 했다. 이날 시상은 연희한방병원 최관준 원장이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고효준은 지난 8월 한 달간 10경기에 나와 21.2이닝 동안 24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선발은 물론 중간계투까지 전천후 활약을 하며 어려운 팀 마운드에 힘을 보탰다.

이범호는 8월 22경기에 출전해 68타수 20안타(6홈런) 15타점 15득점 타율 0.294를 기록했다. 공·수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한 이범호는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독려하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달의 감독상'은 선수단의 팀워크 향상과 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희한방병원의 후원으로 지난 시즌부터 매달 투수·야수 각 1명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수상자는 팀을 위해 희생하며 묵묵하게 공헌한 선수 가운데 김기태 감독이 직접 선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평창서 개최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가 22일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한·중·일 스포츠 장관회의는 2018년부터 2년 간격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동·하계 올림픽이 연달아 열리는 시기를 맞아 세 나라가 스포츠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일본 마쓰노 히로가쓰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 류펑 국가체육총국장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참석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관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세 나라 정상이 '올림픽을 매개로 스포츠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위한 3국 간 교류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두 나라에 제안해 올해 처음으로 세 나라 스포츠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지난달 말 제주도에서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3개국의 스포츠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세 나라의 스포츠 및 문화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스포츠장관 회의에서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교류뿐 아니라 올림픽 공동 유산의 발굴과 문화올림픽 구현, 스포츠를 통한 평화 공존과 사회 발전 문제 등 단순한 경쟁을 넘어 스포츠가 사회에 기여할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23일에는 3개국 장관들이 '평창 선언문'에 서명하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점화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한다. /연합뉴스

전인지

여자골퍼 표정 살펴보니

스마일파

전인지·신지애·김하늘

무표정파

박인비·박성현·소렌스탐

전인지(하이트진로)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가 넘는다.

전인지의 샷에 감탄하다가 전인지의 미소에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골프팬이 많다.

전인지가 유난히 팬이 많은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미소 덕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쁜 얼굴인데 생글생글 웃으면 더 예쁘다고 다들 난리다. 전인지의 미소는 팬 서비스 이상의 기능을 한다. 알고 보면 샷을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만드는 무기다.

미소를 통해 실수를 금세 잊어버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더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이끌어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낸다. 올해 혜성처럼 등장한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역시 프리샷 루틴에 미소를 추가하면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확 달라진 경기력이 미소 덕이라는 분석 기사가 줄을 이었다.

미소는 또 선수의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실력이 비슷해도 늘 웃는 선수가 인기가 더 높다. 프로 선수니 인기는 곧 돈이다.

일본에서 활약하는 김하늘(하이트진로)은 별명이 '스마일 퀸'이다. 김하늘은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1m 퍼트를 놓치고도 미소를 짓는 선수다. 김하늘은 이런 미소로 팬들을 매료시킨다. 일본에서 '스마일 캔디'라는 별명으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보미의 미소도 팬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다.

신지애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편이다. 실수하고도 슬며시 미소로 마무리하는 건 전인지, 김하늘, 이보미와 비슷하다.

하지만 경기 중에는 웃지 않는 선수도 많다. 박성현(넵스)은 무표정의 대명사다. 좋은 샷을 날리거나 결정적인 퍼트에 성공하고선 캐디와 주먹 악수를 할 때도 표정은 무덤덤한 편이다. 박인비(KB금융) 역시 미소는커녕 돌부처를 연상시킬 만큼 표정 변화가 없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얼음여왕'이라는 별명은 고국 스웨덴이 추운 나라라서 붙었다지만 냉정한 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소렌스탐과 경쟁했던 카리 웹(호주)과 박세리 역시 웃는 모습은 좀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박성현이나 박인비나 박세리 모두 인터뷰장에 들어서면 활짝 웃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준다.

'미소파'와 '무표정파'를 나눈다면 '무표정파'가 더 많지만, 최근에는 '미소파'가 늘어나는 추세다.

팬들은 아무래도 잘 웃는 선수, 표정이 밝은 선수는 좀 더 선호한다. 사실 경기할 때 표정은 선수마다 개성이다.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에게 표정 관리까지 바라는 건 지나치다. 경기할 때 표정은 저마다 선택이 다른 전략이기도 하다. 경기 때 웃으면 긴장이 풀려 정신 상태가 느슨해질까 봐 걱정하는 선수도 있다. 이런 선수는 웃을 일이 있어도 애써 웃음을 참는다. 전인지나 쭈타누깐처럼 미소가 경기력을 북돋는다고 여기는 선수도 있지만, 미소가 경기력을 저하한다고 믿는 선수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